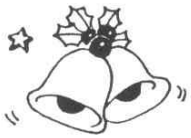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2018년 교구장 성탄 메시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14)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루카 2,10-12))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구세주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은,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뜰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루카 2,8)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난한 서민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여겨졌고, 성서 전통에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에 초대된 첫 번째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첫 번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 받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곧 구세주가 너희에게 오리라.’ 아주 오래 전에(기원전 7세기) 하느님께서 미카 예언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셨듯이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마태오 복음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래서 이제부터 베들레헴은 결코 세상의 작은 고을들 중 하나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마태 1,23 참조) 하느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가장 복된 마을, 가장 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들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마태 2,6)

구세주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시는 오늘의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성탄은 본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장소에서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오시는 오늘의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주님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주님 성탄의 의미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더욱 함께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걸으려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당신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구원으로 떠받들기 위해 우리들의 가장 낮은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작아지시고 약해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당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당신 자신을 끝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받는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못한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하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장 소중하고 값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태어나 시기를 원할 만큼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 안에서 쇄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2019년 한 해를 교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쇄신 운동의 절정기로 삼으려 합니다. 교회 전례력에 따른 교구의 쇄신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성탄 대축일이 전 교구민이 함께 교구의 쇄신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이 주님 성탄의 새로운 베들레헴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시는 성탄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교구의 쇄신을 함께 이루어냅시다.

2017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 권혁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뜻”을 따라...

안녕하세요. 교형자매 여러분!

어느 듯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대림주일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1독서의 미카 예언서는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루카 복음 말씀은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가 유다 산골의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대뜸 큰 소리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기에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며 행복한”여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종이오니 제게 이루어 지소서”라고 모든 희생을 감내할 신념으로 응답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 옛날 나자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주변의 눈초리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잠시 집을 떠나 멀리 유다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 갔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쉬면서 태교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마리아에게 말이 통할 사람이 엘리사벳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요. “뜻”을 따라 살려면 세상이 주는 고통을 수용하고 자기 희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독서의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 세 주인공인 예수님, 마리아,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십니다. 자기들의 삶이 고통이고 아픔이며, 늘 희생과 봉헌의 어려움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명을 하겠다는 고뇌의 결단을 합니다.

“뜻”에 따라 살겠다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축제를 지내는 성탄이 곧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 분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분들의 마음만이라고 헤아리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뜻”을 따라 살도록 결의를 다져봅시다!

송현동 본당 장현준 에프렘 신부



대림 제4주일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분의 오심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리아의 신앙의 응답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며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와 같은 순결과 겸손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으로 우리 안에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용기를 청하며 이 전례를 봉헌합시다.

입당성가 : 92번 '구세주 내 주 천주여'

본기도

† 주님, 천사의 아킴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미카 예언서 5장 1절-4절

안 내 : 미카 예언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계획에 기쁘게 순종하며 자신을 내놓는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화 답 송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2독서 : 히브리서 10장 5절-10절

안 내 :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합니다.

묵 상 :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과 희망 안에서 기쁘게 응답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장 39절-45절

강 론 : “뜻”을 따라...(4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514번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영성체성가 :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서둘러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떠납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순종한 마리아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준비하는 엘리사벳을 돌봄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침묵>

마리아는 자신도 힘든 처지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기쁘게 봉사하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으로 순종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돌봄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95번 ‘별들을 지어 내신 주’, 97번 ‘구원의 메시아’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룩한 밤입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이 내려졌습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그 표징이십니다. 가난한 맘으로 준비한 빈 구유에 구원이신 하느님을 모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입당성가 :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본기도

†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9장 1절-6절

안 내 :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이 짙어진 멍에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룰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화 답 송 :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제2독서 : 티토서 2장 11절-14절

안 내 :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묵 상 : 우리는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불경함과 속된 욕망에서 벗어나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은총이 내려졌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우리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2장 1절-14절

강 론 : ‘교구장 성탄 메시지’(1-3쪽)

예물준비성가 : 104번 ‘사랑하올 아기 예수’

영성체성가 : 105번 ‘사랑의 아기 예수’

영성체 후 묵상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하느님이 이 땅에서 처음 쉬신 곳, 구유입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잠든 때

구유를 지켜보던 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가난한 목자들이 하느님 천사들의 찬미소리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삶의 전부를 하느님의 뜻에 위탁하신 마리아와 요셉께서

하느님 구원의 손길에 기쁨의 찬미를 드리는 밤입니다.

내 마음에 가난한 구유 한 자리 있다면

매일 그 분이 쉴 자리를 내놓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서는 하늘나라 신비를 내 영혼에 내려놓으시고

당신 나라로 초대해주실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01번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빛이신 분, 참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의 충만한 빛 속에서 은총을 받는 거룩한 날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입당성가 : 102번 ‘어서 가 경배하세’

본기도

†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52장 7절-10절

안 내 :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모든 민족들 앞에 당신 구원을 알리셨습니다.

묵 상 :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이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폐허 속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이는 행복합니다.

화 답 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2독서 : 히브리서 1장 1절-6절

안 내 :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순간에 아드님도 함께 하십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1장 1절-18절

강 론 : '교구장 성탄 메시지(1-3쪽)

예물준비성가 : 98번 '이사야 말씀하신'

영성체성가 : 104번 '사랑하올 아기 예수'

영성체 후 묵상

우리 생명이 생겨나기 훨씬 전
한 처음부터 하느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가꾸셨습니다.
하느님과 늘 함께 계셨던 분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참 구원의 빛이 오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어둠도 알고 계십니다.
빛이 오시면 어둠은 걷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생명의 빛을 모셨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84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 공소사목 성금

| | | | |
|--------|----------|------|----------|
| 창구공소 | 100,000원 | 민형기님 | 50,000원 |
| 김택이님 | 100,000원 | 김홍철님 | 50,000원 |
| 성유명지 | 50,000원 | 상광공소 | 100,000원 |
| 최길소님 | 50,000원 | 김을봉님 | 150,000원 |
| 가르멜수녀원 | 100,000원 | |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6,42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림

■ 교구주보 『가톨릭 안동』 창간

- 2019년 1월 6일부터 교구주보 「가톨릭 안동」이 발간됩니다. 아울러 공소사목은 폐간되며 개인 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 2019년 신년인사회

- 일시 : 2019년 1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초등부 복사단 연수

- 일시 : 1월 3일(목) 14:00 ~ 4일(금)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목주, 복사복(개인별), 복사복 입고 찍은 세로 사진 1장
- 참가비 : 1인 3만원
- 신청마감 : 12월 14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교구설정 50주년 관악단원 모집

- 기간 : 11.25(주일) ~ 2019.3.3(주일)
- 대상 : 관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 관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
- 문의 : 김희정 글라라 010-3804-3824

■ 2019년도 전례 꽃꽂이 모임

- 일시 : 1월 5일(토) 10:30
- 장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대상 : 본당 꽃꽂이 담당, 전례 꽃꽂이에 관심 있는 분

■ 제87차 ME주말

- 일시 : 1월 18일(금) 19:00 ~ 20일(일)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1월 13일
- 문의 : 김좌중 M.콜베 010-6580-8408
천연화 베로니카 010-6500-8408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 신·구약 성경입문(2년)
- 문의 : 02)944-0819~24/0840~2(이러닝)

■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 일시 : 2019년 1월 4일(금) ~ 1월 6일(주일)
- 대상 : 중학교 1-2학년
- 비용 : 15만원
- 장소 : 양업고등학교 043-260-5078

■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여중고생 피정

- 일시 : 1월 12일(토) ~ 13일(주일)
- 장소 : 광주 청소년 수련원
- 회비 : 2만원
- 문의 : 010-4893-0524

■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 일시 : 1월 5일(토) 15:00 ~ 19:00
- 장소 : 서울가톨릭대학 의과학 연구원 대강당 2층
- 참가비 : 1만원
- 문의 : 02-6253-3373, 010-8360-3700
- 주최 :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대안학교 산자연중학교 겨울진학캠프

- 일시 : 1월 8일(화) ~ 10일(목)
- 대상 : 진학희망 학생(초6~중1)
- 문의 : 054-338-0530

■ 갈전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판매사업

- 영양토마스 고춧가루 20% 할인 판매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 가격
보통맛 1kg 30,000원/매운맛 1kg 31,000원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3813-4405
- 전통방식으로 만든 메주 판매 : 1장 2만원
- 상담 및 주문 :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교구주보 '가톨릭안동' 광고주 모집

- 교구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2018년 교구 사목활동 지침

교구 설정 50주년 기도문

교구의 쇄신을 위하여

1. 기쁘고 떳떳하게

-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희년의 기쁨 나누기
- 진복팔단의 정신으로 기쁘고 떳떳하게 살기

2. 교구의 행복 비전

- 시대의 요구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기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생명환경 운동 등)
- 긍정적인 마음과 열악한 조건들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기

3. 교구의 쇄신

- 함께 모여 나는 공동체 기쁨 누리기 (교육, 피정, 모임, 행사 등)
- ‘안동교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참여하기

4.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 ‘교구 사명선언문’을 개인과 공동체가 새롭게 다짐하며 살기
- 기쁘게 기도하고 일하는 하느님 나라의 일꾼 되기

○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 교구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어 기쁘고 떳떳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모든 이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주 예수님,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 저희 모두가 열린 마음과 소박한 삶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참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저희 교구를 축복하시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이 터에서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게 하소서.

+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복자 박상근 마티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2017년 12월 8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인준)